

‘비대면 개최’ 목포항구축제 성료

유튜브 구독자 38% 증가
온라인 축제 가능성 확인
TV홈쇼핑 등 특산물 판매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



지난 14일부터 17일까지 온라인으로 개최한 2021 목포항구축제가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행사 모습. <목포시 제공>

지난 14일부터 17일까지 온라인으로 개최한 2021 목포항구축제가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올해 목포항구축제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비대면으로 개최되면서 목포시 공식 유튜브와 페이스북 등 SNS, 목포문화관광 홈페이지 등으로 증계됐다. 축제는 참여형과 시청형 프로그램, 이벤트 등 다양하게 구성돼 참가자의 호응을 얻었다. 온라인 경매 이벤트는 온라인 실시간 참여를 통해 저렴한 가격에 지역특산물을 구매할 수 있어 인기를 끌었다. 또 라이브커머스·TV홈쇼핑 등 지역특산물 판매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했다. 이와 함께 목포를 알리는 주제로 짜여진 목포파시퀀스, 코로나 장기화로 활동무대가 좁았던 지역 예술단체들의 공연 등도 펼쳐졌다. 목포시립예술단과 목포의 관광명소에서 제작한 ‘온라인 버스킹’, 유명 여행 유튜브와 함께 목포의

데이트 코스를 돌아보는 ‘목포 랜선투어’, 목포의 유명 맛집 셰프의 특산물을 활용한 요리 영상을 제공하는 ‘목포 맛, 쿡!’ 등 온라인 프로그램은 목포의 관광자원을 알리는 자료로 활용된다. 올해 축제는 지난해 코로나로 취소된 축제의 명맥을 이어가면서 지친 일상을 위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것으로 목포시는 평가하고 있다. 또 목포시 유튜브 구독자가 38% 이상 증가하는

등 공간의 한계를 넘어 온라인 축제의 새로운 가능성을 열었다는 주장이다. 김종식 목포시장은 “관람객들의 적극적인 참여에 힘입어 비대면 온라인 축제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면서 “내년에는 코로나 걱정 없이 현장에서 목포만의 매력을 느끼는 열기와 흥미 가득한 축제를 선보일 수 있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목포=문병선 기자 서부취재본부장 moon@

진도군 ‘진도개 식용개 농장’ 실태조사 나서

소유자 변경·분실·폐사 등
변경사항 발생시 신고 당부

18일 밝혔다. 진도개를 사육하는 군민들을 대상으로 소유자 변경, 분실, 폐사 등 기르고 있는 진도개에 변경 사항이 발생했을 때 즉시 신고 등을 안내할 방침이다. 또 최근 변화돼 가는 동물복지 패러다임에 맞춰 ▲배변은 그때그때 확실하게 처리 ▲목줄은 여유 있게 ▲집과 놀이터는 깨끗하게 ▲외출 및 산책 시에는 목줄 필수 등 사육환경 개선에 대한 홍보물 제작·배부와 현수막 게시, 홈페이지 홍보 등을 실시한다.

시한다. 군은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관련 기관과의 후방경계 등을 통해 진도개 관리 및 사육환경 개선에 철저를 기할 방침이다. 진도군 관계자는 “진도개의 관리 체계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요구돼 실태조사에 나섰다”며 “동물복지에 적극 앞장서고 진도개 보호와 혈통유지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진도=박현영 기자 hypark@kwangju.co.kr

아열대작목 ‘고수’, 해남 농가 소득원 부상

향료·쌈채 이용...kg당 3만원
아열대 작목 ‘고수(향채)’가 새로운 농가 소득원으로 부상하고 있다. 해남군은 올해 아열대 작목 육성 시범사업을 통해 660㎡에서 아열대 채소인 고수 생산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가을 작형으로 재배한 고수는 kg당 3만원으로 해남군 로컬푸드 직매장을 비롯한 판매처로 출하되고 있다. 동남아 인구 증가로 수요가 늘고 있는 고수는 이중해 동부연안이 원산지인 주로 향료, 쌈채로 이용

되고 있다. 각종 비타민, 철분 등이 풍부하게 함유돼 소화를 촉진하고 면역력 강화, 심혈관질환 예방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생선이나 육류 요리에 곁들이며 비린내와 누린내를 제거하는 데 효과적이다. 중국과 인도, 동남아 음식에 빠지지 않고 쓰여 향후 소비량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고수 재배 적기는 봄, 가을로 3~5월과 9~10월 파종 후 한달가량이면 수확할 수 있다. 해남군은 시범재배(사진)가 성공함에 따라 고수의 연중재배가 가능하도록 재배기술 정립에 나



서는 한편 판로확보 등 사업성을 평가해 재배 농가를 점차 늘려나갈 계획이다. /해남=박희석 기자 dia@kwangju.co.kr

출향 기업인의 ‘통 큰 고향사랑’ 감동

KH그룹 배상운 회장
영광 송이도에 5천만원 쾌척



영광군 출향인사의 아름다운 고향사랑 실천이 훈훈한 감동을 주고 있다. 영광군 송이도에 5000만원의 통 큰 기부(발전기금)를 한 주인공은 KH그룹 배상운 회장이다.

영광군 등에 따르면 배 회장은 지난 추석 연휴 기간인 9월 21일 영광 낙월면 송이도 한 펜션을 찾아 휴가를 보내던 중 후한 동네 인심과 섬의 풍광에 매료되어 섬 발전기금 명목으로 선뜻 5000만원과 송이도 60세대 전 가구에 가정용 스탠드 조명기구를 쾌척했다.

영광군은 그의 뜻을 반영해 발전기부금 전액을 송이도 지역주민들의 편의시설 조성에 사용할 계획이다.

이처럼 배 회장이 고향은 영광 범성포이면서 송이도에 발전기금을 쾌척한 이유는 송이도가 풍광이 아름다워 다시 찾고 싶은 섬으로 전국에 입소문이 나면서 명절을 맞아 고향을 다녀가는 길에 섬을 찾았고, 이곳에서 만난 주민들의 소박하고 후한 인심에 고마움의 표시로 기부금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배 회장은 기부금을 전달하면서 “개지 생활을 오래 하다 보니 태어나고 자란 고향 생각이 간절해졌다”며 “특히 송이도는 꼭 한번 찾아보고 싶은 섬이었다. 내 고향 영광이 앞으로 군민 모두가 행복하고 살기 좋은 명품 군으로 거듭나기를 바란다”고 말하고 송이도를 세계에 알리는 홍보대사도 자처했다.

김준성 영광군수는 “영광에서 태어나고 자랐다는 이유로 배 회장님을 비롯한 많은 출향민께서 고향 발전을 위해 도움을 주고 계신다”며 “이번 기부가 올바른 기부문화 확산과 애乡심을 높

배상운(가운데) KH그룹 회장이 송이도친환경 가족펜션에서 김서영(왼쪽) 송이도 노인회장, 하금식(오른쪽) 이장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는 선례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또한 영광지역의 최대 축제중 하나인 범성포 단오제, 영광굴비축제, 지역 어르신 위안잔치 등 고향 발전을 위한 기부도 매년 하고있어 특별히 감사사를 표했다

영광 범성포가 출생지인 배 회장이 이끄는 KH그룹은 코스피 상장사 2개사, 코스닥 상장사 3개사를 포함해 국내외 15개국 40여 개의 계열사와 직원 수만 1만여 명이다. 그룹사 매출은 1조원이 넘으며 자산 규모도 약 2조 원으로 건실한 글로벌그룹으로 알려져 있다.

그랜드하얏트서울호텔과 장원테크 주식회사 등도 운영하고 있는 이 그룹은 2018년 동계올림픽이 열렸던 평창 알펜시아 리조트 인수 계약을 체결하고 2022년 2월 최종인수를 앞두고 있다.

이 밖에도 그룹 차원에서 설립한 재단법인 블루나눔재단을 통해 기업 이익의 사회환원과 지역사회 발전 공헌에도 앞장서고 있다.

/목포=박현영 기자 kyl@kwangju.co.kr

진도군, 종이수입증지 ‘역사 속으로’

13종 이달 중 전면 폐지
민원인 불편 덜고 경비 절감

수 있다. 오랜 역사를 간직한 종이 수입증지는 이달 중 진도군 금고인 NH농협은행에서 관계자 입회하여 영구폐기할 계획이다.

진도군이 각종 수수료 납부 시 사용해 온 종이 수입증지를 전면 폐지한다.

진도군에 따르면 ‘진도군 수입증지 조례’를 지난 9월 말 개정, 증명과 인허가 등 각종 수수료 납부 시 사용해 온 종이 수입증지를 폐지한다.

진도군 종이 수입증지가 폐지돼 기존에 사용 중인 인증기, 민원발급시스템을 통해 신용카드, 현금, 전자납부시스템 등 다양한 납부 방식으로 전자 수입증지를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수입증지 폐지로 민원인이 민원 서류 신청 시 수입증지를 사서 일일이 서류에 붙여야 하는 불편함과 분실, 훼손, 위변조, 재사용 등의 부작용도 막을

현재 군청 내 농협은행 금고에 보관 중인 수입증지는 10월짜리부터 1만원짜리까지 총 13종이다. 종이 수입증지는 1950년대 민원 수수료를 현금 대신 납부하도록 지자체에서 발행한 유가증권이다.

수입증지는 조폐공사에 의뢰해 인쇄한 것으로 권종별 100매씩 따로 묶어 행정박물용 기록물로서 보관, 관리할 예정이다.

진도군 세무회계과 관계자는 “종이 수입증지가 폐지되면 민원인의 번거로움을 덜고 행정관리 경비 절감, 민원 처리 시간 단축 등의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진도=박현영 기자 hypark@kwangju.co.kr

산업현장 작업환경 개선 및 근로자의 건강을 지켜주는 호남기업 집진기

미스트크리너

절삭유 미스트/오일미스트 제거
원심력 및 필터기술 적용
99.8% 집진 효율

더스트크리너

먼지, 분진, 각종 더스트 제거
카트리지 / 백필터 적용

전기집진기

산업/요식업소
연기·기름·미세먼지 98% 제거
생활민원해결!

광주공장 영업부: 광주광역시 광산구 하남산단10번로 115-33(안철동) TEL: 062-953-2995 H-P: 010-2051-6401

서해영업본부: 서해시 금천구 기신단지2로 14 대우테크노리온12차 501호 TEL: 02-2029-6400-3